



정교회주보

제2563호

2026년 2월 8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바울로와 베드로, 두 사도는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로 순교할 때까지 강력한 사랑의 사슬로 하나가 되었다.

탕자 주일

성 테오도로스 장군 대순교자
자카리아 예언자
(제2조 • 조과 복음 2)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2응송 81
- 제2조 부활 찬양송 81
- 그리스도 입당 축일 찬양송 · 154
- 성당 찬양송
- 그리스도 입당 축일 시기송 · 154
- 사도경 : 고린토 전 6,12~20 (봉)418
- 복음경 : 루가 15,11~32 133

바르나바를 통해 베드로를 만나다

다마스쿠스에서 탈출한 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그는 그리스도 신자들의 공동체에 합류하려 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들을 박해하던 사람의 회심을 쉽게 믿지 못한 이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피했다.(사도행전 9,26 참조) 사울은 마치 갈 곳 없는 이방인처럼 예루살렘에서 고립된 처지에 놓였다.

이때 그의 손을 잡아준 이가 바로 바르나바였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받던 바르나바(사도행전 4,36 참조)는 사울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 곧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뵈었고 얼마나 대담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는지 증언해 주었다.(사도행전 9,27 참조)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는 사울이

훗날 회상하듯 십오 일 동안 함께 지내며 깊은 친교를 나누게 되었다.(갈라디아 1,18-19 참조)

이 15일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목격한 베드로와 부활하신 주님을 뵈는 사울이 서로 복음의 일치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사울은 자신의 복음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하면서(갈라디아서 1,11-12), 그 복음이 사도적 전통과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바르나바의 소개와 신뢰 덕분에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졌고, 장차 이방인들의 사도로 파견될 길을 준비하게 되었다.

식초 한 잔의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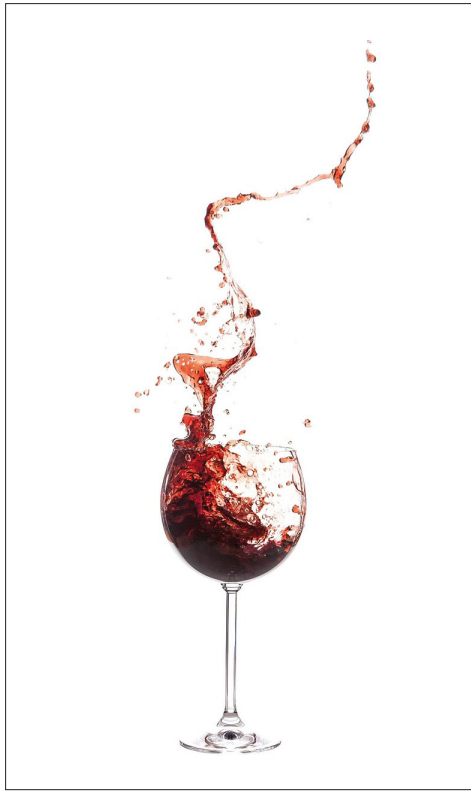
우종현 안토니오스 대신부

아 토스 성산은 정교회
의 영적 성지(聖地)
입니다. 천 년을 넘어 지금
까지 수도자들의 기도가
바다처럼 깊어지는 거룩한
땅이지요. 오래전 그 거룩
한 곳을 순례하며, 마음 같
아서는 계속 머물며 함께
호흡하고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
끈거릴 만큼 부끄러운 일
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머물던 수도원
에서 다른 수도원으로 가
다가 울창한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두세 시간을
헤매다가 한 수도자를 만
나 간신히 목적지에 도착
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죠.
식당은 정리 중이었고, 저는 허기와 갈증으로 온
몸이 가라앉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아쉬움을 안
고 돌아서려는데, 수도자 한 분이 저를 식탁에
앉히고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점심
을 챙겨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지만, 타들어
가는 목마름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마침, 식
탁 위 양념통들 사이로 붉은 액체가 담긴 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포도주구나!' 순간의 착각
이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확인도 하지
않고 잔에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식초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며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리석
은 확신이 낳은 대가였습니다.

그날의 일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지요.



분별없는 확신은 언제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
실을 절실히 배웠기 때문
입니다. 식초를 마시기 전
에 냄새라도 맡아보거나
조금만 살폈더라면 그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하지
않았겠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
은 분명 하느님의 뜻일 것
이다"라는 일방적인 자기
확신이 들 때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진
정한 영적 분별력은 빠르
게 결정하는 능력이 아니
라,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나의 지레짐작을 내려놓
고 기다리는 겸허함에서

비롯되기 마련입니다.

사막 교부들은 이 진리를 일찍이 깨달았습
니다. 그들이 가장 경계한 것도 바로 '검증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성 까시아노스 수사증거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분별은 모든 덕의 어머니
이며, 이 덕이 없이는 어떤 선한 노력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분별의 덕입
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스스로에게 물어
야 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음성과 내 욕망의
소리를 구별하고 있는가?' 기도할 때도, 성서를
읽을 때도, 성인의 가르침 앞에서도 이 질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크신 뜻 앞에 머리 숙이며, 서두르
지 않고 분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새해를 창조적으로 시작합시다

안토니 블룸(1914-2003, 영국의 수로즈의 대주교)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역음



우리는 새로운 해를 창조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 한 해도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희망과 확신 속에서 시작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분이 참으로 주 하느님이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이시고, 그분의 뜻이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지닌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연이나 행운을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일과, 어쩌다 만나는 모든 사람은 모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존재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며, 밝은 것이든 어두운 것이든, 좋은 것이든 힘겨운 것이든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주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전해진다고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인생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일을 전해 받아야 할 사람들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우연에 맡긴 게임이나, 닥치는 대로 일어나는 사건들의 끝없는 연속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성찬예배의 축복

소프로니 성인은 성찬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말하길, 성찬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산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은 현대인은 성찬예배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성찬예배가 주의깊게 행해질 때, 그것은 하느님의 모든 은총을 포괄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성찬예배를 행하는 분이므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하늘나라 전체가 있습니다.

소프로니 성인은 우리 시대에 진정한 기도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 거의 없을 때, 우리를 위해 남겨진 것 전부는 성찬예배라고 말했습니다.

주간 예배 안내

* 2월 14일(토)

영혼 토요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각 성당 예배는 문의 바랍니다.)

■ 영혼 토요일 추도식 안내

우리 정교회에는 연중 두 차례의 영혼 토요일(대 사순절 전 1회, 오순절 전 1회)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로서 모든 잠든 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중 첫 번째 영혼 토요일이 오는 14일에 있으며, 성찬예배 후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꽃리바를 준비하여 참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 서울 성당 결혼 성사

지난 주일(2일), 성 막심 성당에서 로만 대신부의 집전으로 Andrei Tian 교우와 Marina Alekhina 교우의 결혼성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축하드리며, 주님의 축복으로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 나창규 다니엘 대신부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신 나창규 다니엘 대신부님이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무사히 퇴원하시길 모두 기원합니다.

■ 마리아 봉사자, 마은영 마그달리니 교우 추도식

마리아 스피로뽀루 봉사자님과 마은영 마그달리니 교우의 연례 추도식이 지난 1월 25일(토), 서울 성 막심 성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한국 정교회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하신 두 분의 평온한 안식을 위해 기도드리며, 그분들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영성의 샘터

하실 수 있다면

신앙의 길로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자기 양심과 씨름하고 있던 한 젊은 장교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하느님께서 인간의 회개를 그렇게 쉽게 받아주시는지 고백사제에게 물었다. 그러자 사제가 젊은 장교에게 말했다.

“그대 외투가 우연치 않게 어딘가가 찢어지면 그대는 그것이 못 쓰게 되었다고 바로 버리겠느냐?”

“아닙니다. 그 외투를 고칠 수 있다면 수선해서 다시 입겠습니다.”

“그대도 자기 옷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데 하느님께서야 당신의 피조물을 얼마나 더 생각하시겠느냐? 하실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고치려 하시지 않겠느냐?”

고백사제의 대답에 그의 마음이 평안해졌다.

